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현대미포조선, 오세아니아 선사와 1,103억 컨테이너선 3척 계약

현대미포조선이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1,103억원 규모 컨테이너선 3척을 수주함. 납기는 2023년 9월말임. (이데일리)

Celsius Shipping named as buyer behind latest LNG order duo at Samsung

삼성중공업이 월요일(23일) 수주한 LNG운반선 2척은 Celcius Shipping이 발주한 것으로 밝혀짐. 선가는 척당 1.96달러인데, 저렴한 선가를 보아 옵션분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됨. 인도기한은 2024년 9월임. (Tradewinds)

Capesize freight rates smash \$50,000 per day as Brazil market nears selling out

Capesize bulker Spot 운임이 50,000달러/일을 돌파함. 중국향 브라질 철광석 수출 지속에 기인함. 9월 수급은 중국 적체현상이 얼마나 빠르게 해결되는지에 달렸음. (Tradewinds)

Ships could be delayed for weeks as Panama Canal plans maintenance

파나마운하가 8월말 정비를 앞두고 적체현상에 따른 운임상승이 우려됨. 정비는 일요일(8월 29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임. 과거 정비기간 선박들은 최대 14일까지 딜레이를 경험한 바 있음. (Tradewinds)

Clarksons data shows major shipbuilding groups dominating orderbook

Clarksons에 따르면 글로벌 상위 10개 조선사가 10년전에는 전체 수주잔고의 40%를 차지한 반면 현재는 71%를 차지한다고 보도됨. 상위 10개 조선사는 총 3,095척, 8,450만CGT를 수주함. 상위 5개사의 점유율은 50%가 넘는다고 보도됨.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일본 Imabari Shipbuilding과 Japan Maine United가 기업결합을 앞두고 있어 향후 집중현상은 더욱 강화될 것임. (Tradewinds)

Hot markets drive commercial fleet value to \$1.2trn, says Clarksons

글로벌 상선대 가격이 연초대비 +26% 상승한 1.2조달러를 기록함. Clarksons 중고선가는 연초대비 +70p 상승한 163p를 기록함. 이는 2008년말 이후 최고 수준임. (Tradewinds)